

- KB 윤종규 회장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금리우대 및 대출 지원, 소외계층에 대한 예방키트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“전 국민적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- 신한 조용병 회장은 “책임있는 기업시민”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따뜻한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, 안타깝게 피해를 입은 기업과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.
- 하나 김정태 회장도 “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”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소개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 의료진들처럼, 하나금융그룹도 피해를 입은 개인·기업·지역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.
- 농협 김광수 회장은 전국적 점포망을 토대로 농업인·소상공인 등에 “지역밀착형 금융지원”을 최우선 조치하고, 식자재 유통 정체·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를 돕기 위한 사회 공헌활동도 적시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
- 우리 손태승 회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, 스마트·인터넷 बैं킹 등 수수료 감면, 카드대금 청구 유예, 수출대금 회수 지원, 착한 임대인 운동 등 “사각지대 없는 지원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
-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회사가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한 기존대출 만기연장, 특별대출 신규공급* 등 적극적인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,
 - * 5대 금융지주 계열은행 등 은행권은 약 3.2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신규공급 계획 마련
- 일선 창구에서 “제대로” 자금이 공급되기 위해서 금융회사 CEO가 직접 발 벗고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
- ① 금융회사 CEO가 “직접” 나서서, “매일”, “지역별로”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, 일선 창구를 격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

- ② 또한, 피해기업 등이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서 활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,
- ③ 일선 직원이 내방·전화문의를 하는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, 최대한 친절하고 상세하게 응대·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·안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

□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, 지역사회 및 거래업체와 상생의 미덕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실천에 옮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.

- 주요 금융회사들이 이미 착한 임대인 운동, 전통시장 상품 구매, 취약계층 마스크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,

국민	대구경북 전통시장 생필품 구입 후 기부, 마스크 21만개 지원 격리중인 우한교민들에게 데이터 무제한 유심칩(Liiv M) 제공 등
신한	은행소유 건물 중소기업소상공인 임차료 3개월간 30% 감면, 마스크 21만개 지원
하나	그룹소유 건물 소상공인 임차료 3개월간 30% 감면 (대구·경북은 전액면제) 대구·경북·아산 지역, 대한의사협회 등에 마스크 5만개 지원
농협	화훼농가 꽃 40만송이 매입 (입학·졸업식 취소 피해), 범농협 마스크 198만개 공급
우리	그룹소유 건물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, 마스크 6만개 지원 대구지역 전통시장 식료품 구입 후 해당지역 취약계층 식료품 지원

- 좋은 사례는 다른 금융회사들로 확산되고, 보다 다양한 상생의 노력이 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.

□ 금융당국도 민간 금융회사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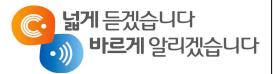
- 이미 코로나19 자금지원 업무와 관련된 제재 면책공문을 발송했고(2.18일), 업무 연속성 유지계획(BCP) 가동에 따른 재택·분리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원격접속을 허용하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습니다(2.10일).
- 당분간 긴급한 현안이 아닌 이상 금감원 현장검사를 자제할 계획이며, 민간의 원활한 여신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 보증 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.

- 참석자들은 고객 없이는 금융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만큼, 지금 기업·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고 위기극복 노력에 앞장서는 것이 결국 금융회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,
- 앞으로 적극적이고 충분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